현재완료의 유표성에 대한 최적성이론적 접근

조학행 · 서정민
(조선대학교)

Jo, Hak-haeng and Seo, Jeong-min. 2005. An Optimality Theoretic Approach to Markedness in Present Perfec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3), 203-226.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Present Perfect from Colloquial Singapore English (CSE) and Standard English (StE) according to Optimality Theory (McCarthy & Prince, 1993). They have similarities in that they have Present Perfect in sentences or conversations. However, sometimes their expressions are very different. Based on these phenomena, this paper investigates TETU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 in Present Perfect of CSE. In CSE, temporal adverb *already*, which has [DIPHASIC] and [ANTERIORITY] features according to Michaelis(1996) and Fong (2003), functions as an unmarked aspectual operator. This idea will be applied to Optimality Theory to examine TETU closely.

주제어(Key words): Present Perfect, CSE, Optimality Theory, StE, TETU, already, [DIPHASIC], [ANTERIORITY], unmarked aspectual operator, lexico-semantic aspect, ambiguity, grammatical aspect, constraint, completion, inception, [E<S], NoVSC, MAX[PPAM], MAX[COM], MAX[INC], le, NoSMA, NoSFA

1. 머리말

본 논문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Colloquial Singapore English: CSE)의 현재완료(Present Perfect)에 나타나는 유표성(markedness)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표준영어(Standard English: StE)에 나타나는 현재완료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어기의 형태나 과거의 형태 또는 과거분사의 형태로 시간부사(temporal adverb) *already*와 함께 문장에 나타나 현재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Platt & Weber(1980), Kwan-Terry(1989), Bao(1995), Alsagoff(2001), Fong(2003)). 그 결과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이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와 형태적인 대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적 상(lexico-semantic aspect)의 측면에서도 중의성(ambiguity)이 발생한다.[1] 그러나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의지동사(volitional verb)나 성취동사(achievement verb)의 경우는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already*와 함께 문장에서 현재완료의 상 의미로 나타나 문법적 상은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와 형태적인 대립을 이루지만 어휘 의미적 상은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Bao, 1995: 184-185).

본 논문에서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대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중의성의 문제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시간부사 *already*가 무표적 상 운용소(unmarked aspectual operator)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함을 밝히겠다. 또한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의지동사와 성취동사의 경우는 주변 언어인 중국어의 영향으로 유형론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겠다. 그리고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대립과 중의성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과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주변 언어인 중국어와의 유형론적인 분포 때문에 발생하는 유사점을 밝힌 후에 제약(constraint) 중심의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으로 분석하겠다. 그 결과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already*가 무표적 상 운용소로 등장하여 나타난 무표형출현(the emergence of the unmarked)의 예임을 증명하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들을 살펴보겠다. 제 3장에서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와 사이에 나타나는 유표성의 정도와 중의성의 차이를 밝히고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주변 언어인 중국어와의 유형론적인 분포 때문에 발생하는 유사점을 밝힌 후에 최적성이론에 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요약 · 정리하겠다.

---

1) 영어의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 범주를 문법적 상과 어휘 의미적 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분류는 Comire(1976, 6-7)가 언급하는 상(aspect)과 어상(Aktionsart)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는 상 의미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이고 후자는 상 의미의 어휘화(lexicalization)로 '순간', '기동', '완료', '결과', '계속' 그리고 '반복' 등의 상 의미가 개별 동사의 어휘적 의미나 그 동사가 처하는 맥락(context)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조성식, 1990: 95).

2. 현재완료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

2.1. 자료의 분석

(1)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들로 문법적 상과 어휘 의미적 상의 측면에서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have*+-*en*과는 달리 나타남을 보여준다.

(1)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2)]

a. Alsagoff(2001, 83)

i. She ***has eaten*** her lunch. (SSE)

i-i. She ***eat*** her lunch ***already***. (CSE) (completive)

i-ii. She ***ate*** her lunch ***already***. (CSE) (completive)

i-iii. She ***eaten*** her lunch ***already***. (CSE) (completive)

b. Fong(2003, 2-5)

i. She ***beat*** the eggs ***already***. (CSE)

i-i. She ***has*** (***already***) ***beaten*** the eggs.

---

2) (1)의 자료에 나타난 언어별 용어나 상 의미에 관한 용어들은 아래 (i)에서처럼 학자마다 다르다.

(i) 언어별 용어 및 상 의미의 용어

	언어별	상 의미
(1a)	구어체 싱가포르영어(Colloquial Singapore English: CSE)/ 표준 싱가포르영어(Standard Singapore English: SSE)	완료(completive)
(1b)	구어체 싱가포르영어(Colloquial Singapore English: CSE)/ 표준영어(Standard English: StE)	완료(ended)/ 기동(just started)
(1c-d)	싱가포르영어(Singapore English: SgE)/ 표준 영국영어 또는 표준 미국영어(Standard British or American English: SBrE)	완료(perfective)/ 기동(inchoative)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1)의 자료를 제시한 학자들의 표현에 의거하여 (i)의 언어별 용어에 대한 구분에서 사선 왼쪽 부분 즉,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싱가포르영어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Colloquial Singapore English: CSE)로 통일하겠다. 그리고 사선 오른쪽 부분 즉, 표준 싱가포르영어, 표준영어 그리고 표준 영국영어 또는 표준 미국영어는 표준영어(Standard English: StE)로 통일하겠다. 또한 상 의미에 관한 용어에서 'completive', 'ended' 그리고 'perfective'는 완료(completion)로 통일하고 'just started'와 'inchoative'는 기동(inception)으로 통일하겠다.

(StE) (ended)

i - ii. She ***has*** (***already***) ***started*** to beat the eggs.
(StE) (just started)

ii. She ***beaten*** the eggs. (CSE)

ii - i. She ***has beaten*** the eggs.
(StE) (ended)

c. Kwan-Terry(1989, 40), Bao(1995, 184)

i. I (don't) ***want*** to eat durian ***already***.
(SgE) (volitional verb) (inchoative)

d. Bao(1995, 183-186)

i. My son ***go*** to school ***already***. (SgE)

i - i. My son ***has left*** for school.
(SBrE) (perfective)

i - ii. My son ***has started*** school.
(SBrE) (inchoative)

ii. He ***arrive*** in New York ***already***.
= He ***already arrive*** in New York.
(SgE) (achievement verb) (perfective/*inchoative)

iii. *I ***already want*** to eat durian.
(SgE) (volitional verb)

(1a)는 (1a, i)의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상 의미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1a, i - i)에서처럼 어기의 형태로, (1a, i - ii)에서는 과거의 형태로 그리고 (1a, i - iii)에서는 과거분사의 형태로 각각 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냄을 보여준다.[3] (1b)의 (1b, i)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가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어기의 형태로 표준영어인 (1b, i - i)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지만 (1b, i - ii)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기동의 상 의미도 나타냄을 보여준다. 이는 (1b, i)에서처럼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어기의 형태로 시간부사 *already*

3) Tay(1979, 104), Platt & Weber(1980, 61-62), Bao(1995, 183), Alsagoff(2001, 80) 그리고 Fong(2003, 1) 등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동사가 어기의 형태로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문장에서 현재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주변 언어들 즉, 중국어의 방언인 Mandarin, Hokkien, Cantonese 그리고 Malay어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 언어들이 유형론적인 분포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제 3장의 (20) 참조.

가 문장에 사용되어 중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b, ii)의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과거분사의 형태로 *already*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표준영어의 현재완료가 나타내는 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c)는 (1c, i)에서처럼 의지동사의 어기가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는 *already*가 문장의 끝에 나타나 기동의 상 의미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1b, i)과는 달리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1d)의 (1d, i)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시간부사 *already*가 동사의 어기와 함께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는 중의성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그러나 (1d, ii)에서와 같이 성취동사의 경우는 동사의 어기와 함께 시간부사 *already*가 문장의 끝에 나타나든 문장의 가운데에 나타나든 완료의 상 의미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1d, i)과는 달리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1d, iii)에 나타난 의지동사의 경우는 문장의 가운데에 *already*가 나타나면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비적형의 문장임을 보여준다.

(1)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2)와 같다.

(2)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

구분			문법적 상	어휘 의미적 상	비고
(1a)	i	i - i	***eat...already***	완료	어기...already
		i - ii	***ate...already***	완료	과거...already
		i - iii	***eaten...already***.	완료	과거분사...already
(1b)	i	i - i	***beat...already***	완료	1. 어기...already 2. 중의성 유발
		i - ii	***beat...already***	기동	
	ii		***beaten***	완료	(already 없이) 과거분사
(1c)	i		***want...already***	기동	(의지동사의) 어기...already
(1d)	i	i - i	***go...already***	완료	1. 어기...already 2. 표준영어는 기동의 상 의미를 *start*와 같은 단어에 의존한다. 3. 중의성 유발
		i - ii	***go...already***	기동	
	ii		***arrive...already*** 또는 ***already+arrive***	완료	1. (성취동사의) 어기 ...already 2. already+(성취동사)의 어기
	iii		**...already+want***		*already+의지동사

2.2. 현재완료와 already

2.2.1. 현재완료

현재완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event)이나 상태(state)가 현재와 관련성을 갖는 문법적 장치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여준다(Moens & Steedman(1988), Michaelis(1992, 1996), Bao(1995), de Swart(1998), Eastwood(2000), Alsagoff(2001)).

문법적 상의 측면에서 오늘날 표준영어의 현재완료는 (3)에서처럼 *have+-en*으로 나타난다(Alsagoff, 2001: 83).

(3) I ***have eaten***.

(3)에 나타난 조동사 *have*는 원래는 어휘 동사로 사용 되다가 나중에 시간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Jespersen, 1933: 237).

어휘 의미적 상의 측면에서 영어의 현재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 영역을 갖는다(Eastwood, 2000: 26).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Eastwood(2000)는 (4)와 같은 예문을 든다.

(4) We'***ve washed*** the dishes. (They are clean now.)

(4)는 과거에 그릇을 씻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그릇이 깨끗하다는 상태를 보여준다.

현재완료의 어휘 의미적 상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의미특성 자질은 각각 (5a, b)와 같이 나타난다(Fong, 2003: 8-10).

(5) a. The viewpoint that the Perfect imposes is an interval containing two contrasting phases(E versus S), plus the condition that two phases are ordered E<S.
b. [DIPHASIC; E<S]

(5)는 현재완료가 두 개의 대조적인 국면, 즉 사건 E(event E)로 인해 야기된 상태 S(state S)를 포함하는 시구간(interval)을 나타내며 이러한 대조적인 두 국면의 사건구조가 순서화 되어짐을 말해준다.

(5)에 나타난 현재완료의 어휘 의미적 상에 대한 의미와 그에 대한 의미 특성 자질을 구체화하여 예시하면 (6a,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6) a. She ***has gone*** to America.

b.

(6a)는 그녀가 과거에 미국에 간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여기에 없음을 의미하는 상태, 즉 (5b)의 양국면성 자질인 [DIPHASIC]을 보여준다. 이를 도식화한 (6b)는 그녀가 과거에 미국에 간 사건이 그녀가 여기에 없는 현재의 상태보다 앞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사건순서 자질인 (5b)의 [E<S]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현재완료가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양국면성 자질인 [DIPHASIC]의 순서를 의미함에 있어서 사건시(E)가 언급시(R)와 발화시(U)보다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2.2.2. already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의미가 (7a)와 같이 나타난다(Alsagoff, 200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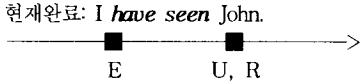
(7) a. My father ***pass*** away ***already***. (CSE)

b. My father ***has passed*** away. (S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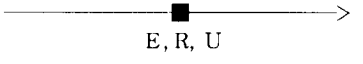
4) 현재완료와 과거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사건시(event time: E), 언급시(reference time: R) 그리고 발화시(utterance time: U)의 관계는 (i)과 같다(Reichenbach, 1947; 이기용, 1998: 269).

(i) i-i. 현재완료: I ***have seen*** John.



i-ii. 과거: I ***saw*** John.

i-iii. 현재: I ***see*** John.



(7a)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가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7b)의 표준영어가 나타내는 현재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7a)에 나타난 *already*는 2.2.1의 (5b)에 나타난 현재완료의 의미특성 자질 가운데 하나인 [DIPHASIC]과 동일하다. 즉,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양국면성 자질인 [DIPHASIC]을 보여준다.[5] 그러나 *already*는 (5b)에 나타난 현재완료의 사건순서 자질인 [E<S]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6]

Michaelis(1996)는 *already*의 의미특성 자질 가운데 하나가 선행성(anteriority)이라고 보고 (8a)와 같이 설명하고 (8b)와 같이 도식화 한다.

(8) Michaelis(1996, 485-486)

a. *Already*..., but also presupposes that the inception of this state is anterior to an interval of a specific type.

---

5) Fong(2003, 7)은 *already*의 의미특성 자질 가운데 하나인 양국면성을 (i)과 같은 문장을 통해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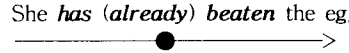
(i) The mice ***have already eaten*** the cheese.

(i)에서 첫 번째 국면(first phase)은 쥐들이 치즈를 아직 먹지 않은 국면이고 두 번째 국면(second phase)은 쥐들이 치즈를 먹어버린 국면이다.

6) Fong(2003, 2-8)은 현재완료의 사건순서 자질인 [E<S]가 *already*에는 아래 (ii)에서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i)과 같이 설명하고 (ii)와 같이 도식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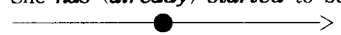
(i) In both StE and CSE, *already*..., ...entails nothing about ordering of phases.

(ii) ii-i. She ***beat*** the eggs ***already***. (CSE)
She ***has*** (***already***) ***beaten*** the eggs. (StE) (ended)



E not-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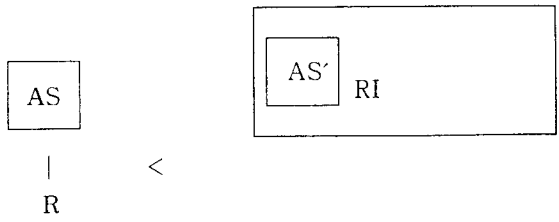
ii-ii. She ***beat*** the eggs ***already***. (CSE)
She ***has*** (***already***) ***started*** to beat the eggs. (StE) (just started)



not-E E, R

(ii)에서 E는 사건(event), not-E는 상태(state) 그리고 R은 언급시를 나타낸다.

b.



Michaelis(1996, 485-486)는 (8a)를 통해 *already*가 포함된 문장에서 상태의 기동은 특정한 유형의 시구간(an interval of a specific type)을 선행함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8b)는 (8a)를 도식화한 것으로 *already*의 상태가 단언되는(asserted) 존재의 상태가 *already*-상태(*already*-state: AS)이고 여기서 AS는 언급시에 얻어진다. 또한 (8a)에서 묘사되는 특정한 유형의 시구간이 언급 시구간(Reference Interval: RI)이고 AS′은 RI 속에 포함되는 시구간이며 RI는 AS′과 동일한 사태(same situation)의 상태를 포함한다.[7]

Michaelis(1996, 486)는 (8)을 구체화하기 위해 (9)와 같은 예를 든다.

(9) a. The ***already*** unstable bridge was rendered dangerously by the hurricane.
b. The ***already*** stable bridge was rendered dangerously by the hurricane.

(9a)에서 AS는 허리케인에 앞서 존재한 다리의 (이미) 불안정한 상태이고 RI는 허리케인이 진행되는 시구간이다. 또한 AS′은 허리케인 이후의 다리의 상태이다. 여기서 AS′은 AS와 동일한 사태로 (9a)는 *already*의 선행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9b)는 RI 속에 포함되는 AS′(다리가 위험스런 상태)이 AS(이미 안정된 다리의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already*의 선행성이 나타날 수 없어서 *already*와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Michaelis, 1992: 327-328; 1996, 486-488).

---

7) I will refer to this interval as the Reference Interval(RI). I will refer to the state whose existence is asserted as the *already*-state(AS). The RI includes a state of the same situation type as the AS. Let us refer to the interval included in the RI as the AS′(Michaelis, 1996: 485-486).

지금까지 2.2에서 살펴 본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와 시간부사 *already*의 의미특성 자질을 정리하면 (10)과 같다.

(10) a. 현재완료: [DIPHASIC; E<S]
b. *already*: [DIPHASIC; ANTERIORITY]

3. 최적성이론과 현재완료의 유표성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살펴 본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유표성을 문법적 상과 어휘 의미적 상의 측면에서 최적성이론에 의해 분석하겠다.

2.1의 (1)에서 살펴보았던 자료를 편의상 (11)에 다시 쓴다.

(11)= (1)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
a. Alsagoff(2001, 83)
i. She ***has eaten*** her lunch. (SSE)
i-i. She ***eat*** her lunch ***already***. (CSE) (completive)
i-ii. She ***ate*** her lunch ***already***. (CSE) (completive)
i-iii. She ***eaten*** her lunch ***already***. (CSE) (completive)
b. Fong(2003, 2-5)
i. She ***beat*** the eggs ***already***. (CSE)
i-i. She ***has*** (***already***) ***beaten*** the eggs.
(StE) (ended)
i-ii. She ***has*** (***already***) ***started*** to beat the eggs.
(StE) (just started)
ii. She ***beaten*** the eggs. (CSE)
ii-i. She ***has beaten*** the eggs.
(StE) (ended)
c. Kwan-Terry(1989, 40), Bao(1995, 184)
i. I (don't) ***want*** to eat durian ***already***.
(SgE) (volitional verb) (inchoative)
d. Bao(1995, 183-186)
i. My son ***go*** to school ***already***. (SgE)
i-i. My son ***has left*** for school.

(SBrE) (perfective)

i-ii. My son ***has started*** school.

(SBrE) (inchoative)

ii. He ***arrive*** in New York ***already***.

= He ***already arrive*** in New York.

(SgE) (achievement verb) (perfective/*inchoative)

iii. *I ***already want*** to eat durian.

(SgE) (volitional verb)

(11)은 표준영어와 차이를 보이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변이형들이다.

(12)는 McCarthy & Prince(1993)의 최적성이론과 그 이론에서 제시한 제약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와 관련된 충실성제약(faithfulness constraint)과 적형제약(well-formedness constraint)들이다.[8)]

(12) 충실성제약과 적형제약

a. 충실성제약[9)]

---

8) McCarthy & Prince(1993)의 최적성이론에서는 언어 현상들이 언어 보편적인 제약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표면형에 나타난다. 제약들은 순위가 정해지며 위반 가능(violable)하다. 순위의 등급 매김(ranking)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위의 제약이 아무리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보다 상위의 제약이 위반되면 표면형으로 도출될 수 없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상위의 제약을 최소로 위반하는 형태가 표면형에 최적형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규칙 중심의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표면형이 도출되지만 최적성이론에서 입력형의 여러 후보형들(candidates)에 대한 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중간 도출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적성이론의 원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McCarthy & Prince(1993, 1-2) 참조.

9) 2.2.2의 (10)에서 살펴 본 현재완료와 시간부사 *already*의 자질 외에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어의 시제나 상과 관련된 자질은 (i)과 같다(Halle & Marantz, 1993; Fong, 2003: 10).

(i) i-i. $-\emptyset$[FINITE] (e.g. *beat*; *sew*)

i-ii. -z[FINITE: 3_{SG}] (e.g. *beats*; *sews*)

i-iii. $-\emptyset_{past}$, -t, -d[FINITE; PAST] (e.g. *beat*; *sewed*)

i-iv. -n[DIPHASIC; E<S] (e.g. *beaten*; *sewn*)

i-v. *beat* [ ]; *sew* [ ] (base form)

i. MAXIMALITY(최대성제약)
S1(입력형)의 모든 자질은 S2(출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i - i. MAXIMALITY[AGREEMENT]: MAX[AGR]
입력형의 일치 자질이 출력형에 나타나야만 한다.
i - ii. MAXIMALITY[ASPECT]: MAX[ASP]
입력형의 상 자질이 출력형에 나타나야만 한다.
i - iii. MAXIMALITY[TENSE]: MAX[TEN]
입력형의 시제 자질이 출력형에 나타나야만 한다.
ii. DEPENDENCE(종속성제약)
S2의 모든 자질은 S1에 대응소를 갖는다.
ii - i. DEPENDENCE[ANTERIORITY]: DEP[ANT]
입력형에 나타나지 않는 선행성 자질이 출력형에 나타 나지 않아야 한다.

b. 적형제약
i. No Verbal Structural Complexity: NoVSC[10]
동사의 형태적 표지에 대한 구조적 복잡성을 피하라.

(12a)는 충실성제약으로 (12a, i)은 탈락을 금지하는 제약이고 (12a, ii)는 삽입을 금지하는 제약이다. (12b)는 적형제약으로 *-z*나 *-ed* 그리고 *-en* 등이 동사에 접사로 첨가되거나 *auxiliary+V* 즉, *have+-en*과 같은 반복적 VP구조(recursive VP structure)에 벌점을 가하는 제약이다.

한편 2.2.2의 (10)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와 *already*의 의미특성 자질은 (13)과 같다.

(13)= (10) a. 현재완료: [DIPHASIC; E<S]
b. *already*: [DIPHASIC; ANTERIORITY]

(i)의 (i - i ~iv)는 굴절접미사이다.

10) (12b, i)의 제약은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형 have+-en이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현재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표상되는 형태들 즉, 동사의 굴절없이 어기의 형태나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형보다 문법적 상의 측면에서 표준영어보다 더 유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Givon(1990, 947)이 제시한 유표성의 기준 즉, 구조적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 사용빈도(frequency distribution) 그리고 인지의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가운데 하나인 구조적 복잡성에 근거하여 설정한 것이다.

(11a, i)의 표준영어에 나타난 자료를 (12)와 (13)을 근거로 최적성이론에 따라 적용하면 (14)와 같다.

(14)= (11a) 표준영어

[F_{IN}[$D_{IPHASIC}$: E<S[She eat3$_{SG}$ her lunch.]]]	D_{EP} [A_{NT}]	M_{AX} [A_{SP}]	M_{AX} [T_{EN}]	M_{AX} [A_{GR}]	NoVSC
a. ...eat....		*!*	*	*	
b. ...eat...already.	*!	*	*	*	
c. ...eats....		*!*			*
d. ...eats...already.	*!	*			*
e. ...ate....		*!*	*	*	*
f. ...ate...already.	*!	*	*	*	*
g. ...eaten....			*!	*	*
h. ...eaten...already.	*!		*	*	*
☞i. ...[has [eaten....]]					***
j. ...[has [eaten...already.]]	*!				***

(14)는 입력형의 한정동사가 양국면성 자질과 사건순서 자질을 지닌 현재완료로 표면형에 나타나려면 (14i)와 같이 표면형에 실현되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14b, d, f, h, j)가 삽입을 금지하는 D_{EP}[A_{NT}]을 위반한 이유는 *already*의 선행성 자질이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14a, c, e)가 M_{AX}[A_{SP}]를 두 개씩이나 위반한 이유는 사건으로 야기된 상태를 나타내는 양국면성 자질인 [DIPHASIC]과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상태보다 앞서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순서 자질인 [E<S]가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b, d, f)는 각각 사건순서 자질만이 탈락되었지만 *already*가 양국면성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위반한다. (14a, b, e, f, g, h)는 M_{AX}[T_{EN}]와 M_{AX}[A_{GR}]을 각각 하나씩 위반한다. 적형제약인 NoVSC에 대한 평가에서는 (14c, d)가 동사에 첨가된 접사 *-z*, (14e, f)는 *-ed* 그리고 (14g, h)는 *-en* 때문에 각각 이 제약을 위반했다. (14i, j)가 NoVSC를 세 개씩이나 위반한 이유는 각각 동사에 첨가된 접사 *-z*와 *-en* 그리고 반복적 VP구조인 *have*+*-en* 때문이다. 결국 (14)에서는 (14i)가 적형제약인 NoVSC를 세 개씩이나 위반하지만 이 제약보다 상위에 위치한 입-출력 충실성제약을 지키기 때문에 최적 후보로 평가된다. 즉, 입력형에 충실한 (14i)가 최적 후보로 등장한 이유

는 충실성제약이 적형제약을 지배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의미가 (11a, i)에 나타난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나 과거의 형태 또는 과거분사의 형태로도 나타나거나 (14b, ii)에서처럼 *already* 없이 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14)에서 살펴 본 표준영어와는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15)= (11a) 구어체 싱가포르영어

$[F_{IN}[D_{IPHASIC}$: E<S[She eat3$_{SG}$ her lunch.]]]	NoVSC	M_{AX} [A_{SP}]	M_{AX} [T_{EN}]	M_{AX} [A_{GR}]	D_{EP} [A_{NT}]
a. ...eat....		*!*	*	*	
☞b. ...eat...already.		*	*	*	*
c. ...eats....	*!	**			
d. ...eats...already.	*!	*			*
e. ...ate....	*!	**	*	*	
f. ...ate...already.	*!	*	*	*	*
g. ...eaten....	*!		*	*	
h. ...eaten...already.	*!		*	*	*
i. ...[has [eaten....]]	*!**				
j. ...[has [eaten...already.]]	*!**				*

(15)는 입력형의 한정동사가 양국면성 자질과 사건순서 자질을 지닌 현재완료로 표면형에 나타나려면 (15b)와 같이 표면형에 실현되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최상위에 위치한 적형제약인 NoVSC에 대한 평가에서 (15c, d)는 동사에 첨가된 접사 *-z*, (15e, f)는 *-ed* 그리고 (15g, h)는 *-en* 때문에 각각 이 제약을 위반한다. (15i, j)는 동사에 첨가된 접사 *-z*와 *-en* 그리고 반복적 VP구조인 *have+-en* 때문에 NoVSC를 각각 세 개씩이나 위반한다. (15a, c, e)는 양국면성 자질과 사건순서 자질이 탈락되어 $M_{AX}[A_{SP}]$를 두 개씩이나 위반한다. (15b, d, f)는 사건순서 자질이 탈락되어 $M_{AX}[A_{SP}]$를 하나씩 위반한다. (15a, b, e, f, g, h)는 $M_{AX}[T_{EN}]$와 $M_{AX}[A_{GR}]$을 각각 하나씩 위반한다. (15b, d, f, h, j)가 $D_{EP}[A_{NT}]$을 위반한 이유는 *already*의 선행성 자질이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15)에서는 (15b)가 적형제약인 NoVSC보다 하위에 위치한 입-출력 충실성제약들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최

상위의 제약을 지키기 때문에 최적 후보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영어와는 달리 적형제약이 충실성제약을 지배한 결과로 분석된다.

(15)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시간부사 *already*가 무표적 상 운용소로 문장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4i)에서와 같이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유표적인 형태를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시간부사 *already*가 무표적 상 운용소로 문장에서 작용하여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표현되는 무표형출현의 예를 잘 보여준다.

문법적 상의 측면에서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형 *have+-en*은 현재형이나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형 보다 더 유표적(more marked)이라 할 수 있다. 어휘 의미적 상의 측면에서도 현재완료는 과거와 현재의 통합된 개념을 지시하기 때문에 언급시와 사건시의 일치로 인해 하나의 시간 개념을 지시하는 과거(past)나 비과거(non-past)에 비해 더 유표적이라 할 수 있다(권용현, 2001: 120).

(16) a. Are you hungry?
b. i. No, I just ***had*** lunch.
ii. No, I ***have*** just ***had*** lunch.

청자는 (16a)의 질문에 대해 방금 전에 점심을 먹어서 현재는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16b, ii)와 같이 현재완료로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6b, i)과 같이 실제 대화에서는 단순과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완료가 문법적인 상의 측면에서 단순과거에 비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에서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복잡성은 특히 대화체에서 많이 반영되는데 이는 대화의 성격상 정확한 표현보다는 간결성이 요구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이러한 문법적 상과 어휘 의미적 상의 무표성(unmarkedness)을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5)의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15b)가 가장 무표적인(unmarked)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11a, i)에 나타난 것처럼 (15b, f, h)가 모두 현재완료의 상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표준영어에서는 (11b, i - i)에 나타난 것처럼 (15i, j)에서 *already*가 현재완료형과 함께 수의적으로 문장에 사용된다. 그러나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11b, ii)에 나타난 것처럼 (15g)에서 *already* 없이 과거분사의 형태로도 현재완

료의 상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15b, f, g, h, i, j)에 나타나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에 대한 상 의미의 표상들을 각각의 제약 위계에 의해 정리하면 (17)과 같다.

(17)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표상

a.= (11a-b)

$[F_{IN}[D_{PHASIC}$: E<S[She eat3$_{SG}$ her lunch.]]]	No VSC	M_{AX} [A_{SP}]	M_{AX} [T_{EN}]	M_{AX} [A_{GR}]	D_{EP} [A_{NT}]
☞ i .=(15b) ...eat...already.		*	*	*	*
ii.=(15f) ...ate...already.	*!	*	*	*	*
iii.=(15g) ...eaten....	*!		*	*	
iv.=(15h) ...eaten...already.	*!		*	*	*
v.= (15i) ...[has [eaten....]]	*!*				
vi .= (15j)...[has [eaten...already.]]	*!*				*

b. i .= (17a, i): ...eat...already.

NoVSC	$M_{AX}[A_{SP}]$	$M_{AX}[T_{EN}]$	$M_{AX}[A_{GR}]$	$D_{EP}[A_{NT}]$
	*	*	*	*

⇒ NoVSC > $M_{AX}[A_{SP}]$, $M_{AX}[T_{EN}]$, $M_{AX}[A_{GR}]$, $D_{EP}[A_{NT}]$

ii .= (17a, ii): ...ate...already.

NoVSC	$M_{AX}[A_{SP}]$	$M_{AX}[T_{EN}]$	$M_{AX}[A_{GR}]$	$D_{EP}[A_{NT}]$
*	*	*	*	*

⇒ NoVSC, $M_{AX}[A_{SP}]$, $M_{AX}[T_{EN}]$, $M_{AX}[A_{GR}]$, $D_{EP}[A_{NT}]$

iii.= (17a, iii): ...eaten....

$M_{AX}[A_{SP}]$	$D_{EP}[A_{NT}]$	NoVSC	$M_{AX}[T_{EN}]$	$M_{AX}[A_{GR}]$
		*	*	*

⇒ $M_{AX}[A_{SP}]$, $D_{EP}[A_{NT}]$ > NoVSC, $M_{AX}[T_{EN}]$, $M_{AX}[A_{GR}]$

iv.= (17a, iv): ...eaten...already.

$M_{AX}[A_{SP}]$	NoVSC	$M_{AX}[T_{EN}]$	$M_{AX}[A_{GR}]$	$D_{EP}[A_{NT}]$
	*	*	*	*

⇒ MAX[ASP] > NoSVS, MAX[TEN], MAX[AGR], DEP[ANT]

v.= (17a, v): ...[has [eaten....]]

MAX[ASP]	MAX[TEN]	MAX[AGR]	DEP[ANT]	NoVSC
				**

⇒ MAX[ASP], MAX[TEN], MAX[AGR], DEP[ANT] > NoVSC

vi.= (17a, vi): ...[has [eaten...already.]]

MAX[ASP]	MAX[TEN]	MAX[AGR]	DEP[ANT]	NoVSC
			*	**

⇒ MAX[ASP], MAX[TEN], MAX[AGR] > DEP[ANT] > NoVSC

(17a)에서 (17a-ⅰ, ⅱ, ⅲ, ⅳ)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들을 제약위계에 의해 평가한 것이고 (17a-ⅴ, ⅵ)은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변이형들을 제약위계에 의해 평가한 것이다. (17b)는 이들 각각의 후보형들을 제약위계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나열한 것이다.

(11b)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1b, ⅰ)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11b, ⅰ-ⅰ)에서는 표준영어의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지만 (11b, ⅰ-ⅱ)에서는 기동의 상 의미를 나타냄을 보여준다.[11] 이는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시간부사 *already*와 함께 문장에 사용되어 중의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12]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중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18)과 같은 제약을 제안한다.

---

11) (11b, ⅱ)에 대해서는 도표 (15g)와 (17b, ⅲ) 참조.

12) (11b, ⅰ)에서와 같이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의지동사나 성취동사를 제외하고는 *already*가 문장의 가운데 나타나든 문장의 끝에 나타나든 완료와 기동의 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의성을 유발한다(Bao, 1995: 186). 또한 표준영어는 기동의 상 의미를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는 달리 *start*와 같은 단어에 의해서만 나타낸다.

(18) MAXIMALITY[Present Perfect Aspect Meaning]: MAX[PPAM]
S1의 상 의미가 S2에 나타나야만 한다.
a. MAXIMALITY[Completion]: MAX[COM]
입력형에 나타난 완료의 상 의미가 출력형에 나타나야만 한다.
b. MAXIMALITY[Inception]: MAX[INC]
입력형에 나타난 기동의 상 의미가 출력형에 나타나야만 한다.

(18)은 일종의 입-출력 충실성제약으로 입력형의 상 의미가 출력형에 나타나도록 하는 어휘 의미적 상을 반영한다.
(18)의 제약을 (11b, i)에 적용하면 (19)와 같다.

(19)= (11b, i)

[COM[FIN[DIPHASIC: E<S[She beat3SG the eggs.]]]]	NO VSC	MAX [COM]	MAX [INC]	MAX [ASP]	MAX [TEN]	MAX [AGR]	DEP [ANT]
☞a. COM[...beat...already.]				*	*	*	*
b. INC[...beat...already.]		*!		*	*	*	*

(19)는 입력형의 한정동사가 양국면성 자질과 사건순서 자질을 지닌 완료의 상 의미로 표면형에 나타나려면 (19a)와 같이 실현되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19)는 MAX[COM]과 MAX[INC]의 제약위계에 의해 (19b)가 MAX[INC]보다 상위의 제약인 MAX[COM]을 위반하여 (19a)가 최적 후보로 나타난다. 만약 (19)에서 (19b)가 표면형에 최적 후보로 나타나려면 아래 각주 14)에서처럼 (19)와는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다.[13]

(11c, i)과 (11d, i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14] (11c, i)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의지동사의 경우는 어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already*는 문장의 끝에 나타나 기동의 상 의미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11b, i)이나 (11d, i)과는 달리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1d, ii)

13) (i)= (11b, i - ii)

[INC[FIN[DIPHASIC: E<S[She beat3SG the eggs.]]]]	NO VSC	MAX [INC]	MAX [COM]	MAX [ASP]	MAX [TEN]	MAX [AGR]	DEP [ANT]
a. COM[...beat...already.]			*!	*	*	*	*
☞b. INC[...beat...already.]				*	*	*	*

14) (11d, i)과 (11d, iii)에 대해서는 각각 도표 (19)와 (22) 참조.

에서와 같이 성취동사의 경우는 어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시간부사 *already*는 문장의 끝에 나타나든 문장의 가운데에 나타나든 완료의 상 의미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11b, i)이나 (11d, i)과는 달리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Bao(1995)는 (11c, i)과 (11d, ii)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의 주변 언어인 중국어의 불변화사 *le*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20) Bao(1995: 184-187)

a. i. 구어체 싱가포르영어

i-i.= (11c, i) I (don't) ***want*** to eat durian ***already***.
(SgE) (volitional verb) (inception)

i-ii.= (11d, iii) *I ***already want*** to eat durian.

ii. 중국어

ii-i. wo ***xiang chi*** liulian ***le***.
I now want eat durian LE
I want to eat durian.
(Chinese) (volitional verb) (inception)

ii-ii. *wo ***xiang le chi*** liulian.
I want LE eat durian

ii-iii. *wo ***xiang chi le*** liulian.
I want eat LE durian

b. i. 구어체 싱가포르영어

i-i. = (11d, ii) He ***arrive*** in New York ***already***.
= He ***already arrive*** in New York.
(SgE) (achievement verb) (completion/*inception)

ii. 중국어

ii-i. ta ***daoda*** niuyue ***le***.
he arrive New York LE
He arrived in New York.
(Chinese) (achivement verb) (completion/inception)

ii-ii. ta ***daoda le*** niuyue.
he arrive LE New York
He arrived in New York.

(Chinese) (achievement verb) (completion/*inception)

(20a)에서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20a, ⅰ-ⅰ)에서와 같이 의지동사의 경우는 동사가 어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시간부사 *already*는 문장의 끝에 나타나 기동의 상 의미를 나타내지만 (20a, ⅰ-ⅱ)에서와 같이 문장의 가운데에 *already*가 나타나면 비적형의 문장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유형론적인 분포는 (20a, ⅱ)의 중국에도 나타난다. (20b)도 이와 동일한 유형론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20b)에서 구어체 싱가포르영어는 (20b, ⅰ-ⅰ)에서와 같이 성취동사의 경우는 동사가 어기의 형태로 *already*와 함께 문장의 끝에 나타나든 동사의 앞에 나타나든 완료의 상 의미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유형론적인 분포는 (20b, ⅱ)의 중국에도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20)에서와 같은 유형론적인 분포를 근거로 (11c, ⅰ)과 (11d, ⅱ)를 설명하기 위해 (21)과 같은 제약을 제안한다.

(21) a. No Sentence-Medial *Already*: NoSMA
*Already*가 문장의 가운데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b. No Sentence-Final *Already*: NoSFA
*Already*가 문장의 끝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21)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주변 언어들 간의 유형론적인 분포를 반영하는 제약으로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어휘 의미적 상 의미의 중의성을 피하고자 하는 무표형을 위한 적형제약이다.[15]

(21)의 제약에 근거하여 (11c, ⅰ)를 분석하면 (22)와 같다.

(22)= (11c, ⅰ)

$[I_{Nc}[F_{IN}[D_{PHASIC}$ E<S[I want to eat durian already.]]]]	No VSC	No SMA	No SFA	MAX [COM]	MAX [INC]	MAX [ASP]	MAX [TEN]	MAX [AGR]	DEP [ANT]
a. C_{OM}[...want...already.]			*		*!	*	*		*
b. C_{OM}[...already want....]		*!			*	*	*		*
☞c. I_{Nc}[...want...already.]			*			*	*		*
d. I_{Nc}[...already want....]		*!				*	*		*

15) 이는 Givon(1990, 947)이 제시한 유표성의 기준 즉, 구조적 복잡성, 사용빈도 그리고 인지의 복잡성 가운데 하나인 인지의 복잡성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주변 언어들 간의 유형론적인 분포에 대해서는 각주 3) 참조.

(22)는 입력형의 한정동사가 양국면성 자질과 사건순서 자질을 지닌 기동의 상 의미로 표면형에 나타나려면 (22c)와 같이 실현되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22b)와 (22d)는 NoSMA를 각각 위반한다. (22a)와 (22c)는 NoSFA를 각각 위반하지만 (22a)가 입력형의 어휘 의미적 상 의미에 대한 충실성을 반영하는 제약 MAX[INC]를 위반하기 때문에 (22c)가 최적 후보로 등장한다.

(11d, ii)를 분석하면 (23)과 같다.

(23)= (11d, ii)

[COM[FIN[DIPHASIC: E<S[He arrive3SG in New York.]]]]	NO VSC	NO SMA	NO SFA	MAX [COM]	MAX [INC]	MAX [ASP]	MAX [TEN]	MAX [AGR]	DEP [ANT]
☞a. COM[...arrive...already.]			*			*	*		*
☞b. COM[...already arrive....]		*				*	*		*
c. INC[...arrive...already.]			*	*!		*	*		*
d. INC[...already arrive....]		*		*!		*	*		*

(23)은 입력형의 한정동사가 양국면성 자질과 사건순서 자질을 지닌 완료의 상 의미로 표면형에 나타나려면 (23a)나 (23b)와 같이 실현되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 성취동사의 경우는 *already*가 문장의 가운데 오든 문장의 끝에 오든 중의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23)에서는 (22)와 달리 NoSMA와 NoSFA의 제약위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23a, b, c, d)가 NoSMA와 NoSFA를 각각 위반한다 할지라도 이 두 제약이 최적 후보를 평가하는 역할은 담당하지 못한다. 결국 최적 후보의 선택을 담당하는 MAX[COM]에 의해 (23a, b)가 표면형에 나타난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유표적인 구조로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완료의 상 의미가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동사의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무표적 상 운용소로 작용하는 *already*와 함께 문장에서 현재완료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는 McCarthy & Prince(1995)와 Kager(1999) 등이 주장하는 무표형출현의 예로 제 3장의 (14)에서 살펴 본 표준영어의 제약위계와는 대조적으로 (15)에서 살펴 본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서는

*already*가 굴절 없이 어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동사와 함께 문장에서 무표적 상 운용소로 작용한 경우였다. 이 경우는 적형제약이 충실성제약을 지배한 결과로 표준영어에 비해 구어체 싱가포르영어가 보다 무표적인 구조임을 제약 중심의 최적성이론에 의하여 증명하였다. 또한 (19)에서 살펴 본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에 나타나는 중의성의 문제와 (22)에서 살펴 본 의지동사와 (23)에서 살펴 본 성취동사에 나타나는 변이의 문제도 최적성이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구어체 싱가포르영어와 표준영어에 나타나는 시간부사 *already*와 관련된 현재완료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보다 보편적이고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연 언어에 대한 분석 ·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언어 보편적인 이론체계가 확립되어 언어현상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론이 나와야 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용현. (2001). 현재완료형의 유표적 특성과 기능. *현대영미어문학 19-2*, 113-134. 현대영미어문학회.

이기용. (1998). *시제와 양상 2*. 서울: 태학사.

조성식. (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Alsagoff, L. (2001). Tense and Aspect in Singapore English. in V. Ooi(ed.) *Evolving Identities: The English Language in Singapore and Malaysia*, Times Academic Press, Singapore, 79-88.

Bao, Z. (1995). 'Already' in Singapore English. *World English 14*, 181-188.

Comrie, B. (1976). *Aspec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astwood, J. (2000). *Oxford Practic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ng, V. (2003). Unmarked 'already': Aspectual expressions in two varieties of English. [*ROA 590-0403*].

Givon, T. (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alle, M. & A. Marantz. (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in K. Hale and S.J. Keyser(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IT Press.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Kager, René. (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wan-Terry. (1989). The specification of stage by a child learning English and Cantonese simultaneously: A study of acquisitional process. In *Interlingual Process*. Edited by Hans W. Decbert and Manfred Raupach, Tübingun: Gunter Narr Verlag.

McCarthy, John & Alan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Brandeis University.

McCarthy, John & Alan Prince. (1995). Prosodic Morphology. In J. goldsmith(ed). *The Handbook for Phonological Theory*, 318-66.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Michaelis, L.A. (1992). Aspect and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The case of *already*. *Lingua 87*, 321-339.

Michaelis, L.A. (1996). On the Use and Meaning of *'alread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9*, 477-502.

Moens, M. & M. Steedman. (1988).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4*, 15-28.

Platt, John T., & Weber, Heidi. (1980). *English in Singapore and Malaysia: Status, Features, Func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ichenbach, Hans.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The Macmillan Co.

de Swart, H(1998). Aspect Shift and Coerc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347-385.

Tay, Mary W.J. (1979). The uses, users and features of English in Singapore. In *New Varieties of English*. edited by Jack C, Richards. Singapore: SEAMCO Regional Language Centre.

조학행/서정민
501-759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2)230-6524
Email: hhjo@chosun.ac.kr/jmseojung@hanmail.net

Received: 30 Jun, 2005
Revised: 13 Sept, 2005
Accepted: 20 Sept, 2005